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유제품 혁신 가속화

-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 등 소비자 니즈 반영 제품 개발 박차



코로나19로 식음료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도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 최대 유가공조합인 알라푸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으로 유통망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유제품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과 웰빙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백질 강화는 물론 유제품의 건강학적 효능을 강조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식이나 식사대용으로 손쉽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백질 강화 스포츠 음료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출처 : foodingredientsfirst.com, 9월 13일자 >

[낙농경영] 생산비 상승으로 낙농업계 어려움 가중 - 라보뱅크 발표

- 물류비·운송비 상승,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유제품 가격에도 영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가격까지 상승하며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기업인 라보뱅크가 발표한 세계낙농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가격 상승 압력으로 농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주사료인 옥수수 재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두 수확량도 평년대비 감소해 사료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도 비교적 높은 원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와 운송비가 상승하고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세계 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출처 : feednavigator.com, 9월 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